문화대혁명 속 타자(他者)

- 연변을 중심으로 -

정호윤*

<차 례>

1. 머리말
2. 문혁 초기의 연변 : 홍위병과 조반파의 등장
3. 문화대혁명 시기의 북-중 관계
4. 혁명위원회 성립 전후의 연변 : '계급노선'에서 '민족'의 문제로
5. 맺음말 : 문혁의 타자(他者)로 남은 연변

【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인 1966년부터 1970년 사이에 연변에서의 문화대혁명이 민족갈등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당시 북한과 중국의 외교상황(1966~1970년)을 연결지어봄으로써 소수민족지역 문화대혁명의 다양한 양상을 검토하였다. 문혁 초기인 1966년 연변에서는 문혁 이전에 발생했던 반우파투쟁의 결과로 역사문제에 대한 조반을 일으켜 계층, 신분적 변화를 희망한 조반파와 보수파인 홍위병이 등장하게 된다. 1967년 이후 연변 문혁에서의 민족갈등이 첨예화되는 과정에 있어 당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중공당국의 문혁이라는 혼란한 상황의 정리과정이 '민족' 문제로 진행되는

* 영남대학교 동아시아문화학과 박사과정.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방법보다 더 강한 일체화이론의 계기를 타의적으로 마련해주었고, 결국 이로 인해 소수민족자치주인 연변에서는 중공당국에 반하는 인사들이나 대중들이 특무, 반역자, 매국역적 등의 죄로 덧씌어져 탄압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문혁과정에서 변경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계급투쟁과 중공중앙에 대한 비판이 뚜렷이 드러나는 데 반해, 소수민족에서의 문혁은 계급투쟁과 중공중앙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민족문제로 모두 흡수되어버리는 과정을 보인다. 이러한 중국 문혁시기 연변을 포함한 소수민족 지역은 타자(他者)적 이미지를 거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신중국의 영토적 통합력이 대폭 제고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주제어: 문화대혁명, 연변, 북-중관계, 주덕해(朱德海), 마오위엔신(毛遠新), 조반파(造反派), 민족갈등

1. 머리말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문혁에 대한 역사와 기억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다. 1981년 6월 중국 공산당 11기 6중 대회에서 채택된 「역사결의」를 통해 살펴보면, 중국 공산당은 문혁에 대한 부정을 포함하여 10여 년의 기억을 지워나간다. 그러나 문혁은 중국 각 지역에서 동일한 양상과 모습을 띄지는 않았다. 또한 모든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양상이 동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혁은 각 지역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문혁에 대해 갖는 기억 또한 각 지역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대체로 문화대혁명은 공산당 당 조직,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대한 시각과 같은 정치적 문제를 주요한 쟁점으로 두고 진행

되었기 때문에 민족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주제였다. 이처럼 문혁에 대한 시각이 대부분 정치적 운동을 배경으로 두고 있고, 구체적으로 전개된 공간과 지역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서 문혁의 전모에 대한 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다.[1]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의 변경지역인 소수민족지역에서 전개된 문혁은 이들 지역의 민족문화와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들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전개된 문혁은 한족 거주 지역의 문화대혁명에서는 쉽게 표면화되지 않는 '민족', '민족주의'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수민족지역 중에서도 연변 지역은 문화대혁명 시기 민족 갈등, 즉 조선족 자치주 주장인 주덕해(朱德海, 조선족)와 毛遠新(마오위엔신, 한족)의 대결구도를 중심으로 조선족과 한족 사이 양상의 모습에 대한 연구가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2] 하지만 조선족과 한족의 갈등양상에만 연구가 집중되어 있어 연변에서 일어난 문혁의 다양한 양상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연변의 조선족처럼 중국의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소수민족자치구역은 중국 변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라는 공간적 특징인 국제사회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3] 즉, 조선족이라는 민족적 특징, 그리고 북한이라는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소수민족자치주라는 공간적 특징을 함께 연결하여 본다면, 연변에서의 문화대혁명을 단순한 민

---

1) 이강원, 「문화대혁명과 소수민족지구의 정치지도 : 내몽고자치주와 어룬춘자치기의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02, p. 2.

2) 성근제, 「문화대혁명과 연변」, 『중국현대문학』43호, 2007; 염인호, 「중국연변 문화대혁명과 주덕해의 실각 : 북한 특무 혐의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25집, 2005; 최병우, 「조선족 소설과 문화대혁명의 기억」, 『현대소설연구』54, 2013; 고명철, 「중국의 맹목적 근대주의에 대한 조선족 지식인의 비판적 성찰 : 중국조선족 작가 김학철의 〈20세기의 신화〉의 문제성」, 『한민족문화연구』22집, 2007.

3) 楊海英, 「少數民族の中國文化大革命」, 『東亞』 588집, 2016, p. 29.

족갈등의 양상이라고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연변에서의 문화대혁명이 민족갈등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당시 북한과 중국의 외교상황(1966~1970년)을 연결지어봄으로써 소수민족지역에서의 문화대혁명의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4] 특히, 1966년 문혁 초기의 연변에서의 대중운동 양상과 1967년 이후 민족갈등이 첨예화 되는 과정에 당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 변경의 공간인 소수민족지역과 이곳의 소수민족이 어떻게 타자(他者)적 존재가 되어버리는지 살펴봄으로써 문화대혁명의 실제적 모습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문혁 초기의 연변 : 홍위병과 조반파의 등장

문혁 초기 중공 중앙에서는 1966년 5월의 정치국확대회의, 그리고 동년 8월의 8기 12중전회에 의해 문혁이 시작되어 「5·16통지」가 채택되고 '반당집단'('사가점(四家店)'[5]으로 불림)이 적발되었다. 이후 「프롤레타리아문화대혁명에 대한 결정」(16개조)가 채택되고 류사오치·덩샤오핑 사령부에 대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1966년 5월 학교 내에서 탄생한 '홍위병'은 8월 1일 칭화(淸華)대학 부속중학 홍위병에 대한 마오쩌둥의 지지를 계기로 조반(造反)을 위해 궐기하였고, 9월 5일 중공 중앙과 국무원의 「각지의 혁명적 교사 학생이

4) 본 연구의 중점자료는 문혁의 디지털자료인 Song Yongyi, Chinese Cultural Revolution Database, Published by Universities Service Centre for Studies, 2010, Third Edition.(이하 CCRD로 약칭), 문혁 당시의 북-중 관계에 대한 자료는 우드로윌슨센터의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5) 펑전(彭眞)·뤄루이칭(羅瑞卿)·루딩이(陸定一)·양상쿤(楊尙昆)을 칭함.

베이징에 와 참관 학습하는 것에 대한 통지」 이후 "학업을 중지하고 혁명에 매진하라(停課鬧革命)" 운동이 발전하여 전국적인 경험교류(大串聯)가 시작되었다. 한편, 당 중앙의 지도기관이 개조되어 등장한 중앙문혁소조[6]는 정치국을 대신해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혁 초기의 변경지역인 연변은 중앙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66년부터 같은 해 말까지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들은 큰 혼란에 휩싸였지만, 「연변일보」를 통해서 본 연변 지역은 66년 말까지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형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제 1 서기였던 주덕해의 안정적인 권력 기반과 더불어, 변경지역에서의 조반파 탈권투쟁 그리고 외지학생이 변경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지시가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판단된다.[7] 주덕해는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후 상부의 지시를 통해 각급 학교 단위에 공작조를 파견하고, 66년 문혁 발생 전부터 상부가 강조한 사회주의 교육 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 6월 21일에 주덕해와 간부들은 연변대, 1,2,3중학교, 의학원 홍위병 학생들과 면담을 하고 28일에 공작조를 중학교와 문화사업단위에 파견한다. 이때까지는 연변 또한 당조직의 위계를 중시하는 공작조가 각 학교에서 당조직 노선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문화혁명의 대상으로 삼는 중앙에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8]

---

6) 1966년 5월 28일, 조장= 천보다(陳伯達), 부조장= 장칭(江靑), 고문= 캉성(康生).

7) "연변지역은 소련, 조선과 국경을 접해 있다…학교, 기관, 기업 등에서 4대 민주(대명, 대방, 대자보, 대변론)를 실시하여 군중을 만족시켜 군중이 직접 관리를 파면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특히 외지학생이 변경지역에 들어오지 않게 막아야 한다. 이미 들어왔다면 나가도록 설득해야 한다." 「中共中央關于邊境地區文化大革命有關問題的決定」(1966.09.07.), 『內部參考』(1966.5-1968.5), CCRD, 2006. 수록, 참조. 문혁 이전에도 마오쩌둥은 소수민족출신의 공산주의 간부가 민족문제와 민족반동파 해결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毛澤東, 「關于民族工作的指示」(1965.09), CCRD 수록, 참조.

8) "무산계급 사상을 흥성시키자면 자산계급(타도된 지주, 부농, 반혁명분자,

7월 초에 부주장 조룡호와 함께 연변대학교 당위원회 서기 리희일이 공작조를 이끌고 연변대학에 들어온 후 8월 30일에 8·.27파가 주최가 되어 연변대학에서 최초의 대중집회를 열고 조룡호와 리희일을 끌고 나와 비판투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주덕해는 "연변은 군사적 중요성을 띤 변경 지역이기 때문에, 변경지역의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당시 홍위병들의 '대교류'를 허락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이러한 연변이 가진 공간적 특징을 통한 논리는 외지학생들과 뜻을 함께 하는 조반파의 세력 확장을 차단하는 데에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6년 8월 연변에도 조반파가 등장하지만, 이후의 연변 지역의 신문인 〈연변일보〉에서는 교육제도의 개혁에 대한 기사[9]의 등장과 하향지식청년들의 농촌 진출을 환영하는 기사[10], 홍위병들의 무장투쟁이 아닌 도리(道理)로 투쟁하는 것을 강조하고 당조직의 지도를 강조하는 기사[11]가 등장한다. 이렇게 연변자치주의 당조직이 중심이 되는 초기 문혁의 모습은 당시 중공 중앙의 집권파인 류사오치, 덩샤오핑이 주도하는 문혁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66년 8월 하순부터 혁명적 연계를 건립한다는 목표를 지닌 외지의 대학생들이 연변으로 왔으며, 이들은 연변대학 학생들에게 혁명조반단을 조직하여 문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마침내 66년 8월 27일 연변대학의 일부 교원과 학생들

나쁜분자, 우파분자)사상을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훈춘현 양수공사 대장 박종관, 『연변일보』, 1966.06.16.

9) "현행의 고등학교 학생모집시험을 폐지하고 금년부터 추천과 선발을 결합시킨 새로운 학생모집 방법을 실행하여 무산계급정치를 돌출하게 내세우자", "전일제 고중은 대학으로 가는 직통로여서 전도가 있지만 농업 고중은 대학 가는 길이 막혀 전도가 없다", "어떤 교원들은 많은 졸업생들이 찾아가면 고중, 대학에 진학한 동무와는 이야기하지만 생산일전에 참가한 동무와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연변일보』, 1966.06.19, 29.

10) 『연변일보』, 1966.08.13.

11) 『연변일보』, 1966.09.08., 1966.10.14.

이 8.27혁명조반단(약칭 8.27)을 조직하였다.[12] 그러나 8.27조반단이 탄생하는 같은 날 또 하나의 조직이 연변대학에서 탄생하였다. 외지에서 온 학생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대학생과 교직원들이 그날 혁명조반단이라는 조반 조직을 결성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조직은 이후 '홍기전투연군'(약칭 홍련)으로 이름을 고쳤다. 홍련 역시 8.27과 마찬가지로 마오쩌둥이 지시한 문혁을 추진한다는 선언을 하고 행동에 들어간다.[13] 이에 따라 연변대학 8.27의 영향을 받고 8.27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같은 노선을 취한 연변 각지의 단위 조직을 이후 8.27파로 부르고, 마찬가지로 홍련과 같은 노선을 취하고 그와 연대한 연변의 각급 단위의 조직들을 홍련파로 불렀다.

당시 8.27파와 홍련파의 정치적 색채를 분류하자면 8.27은 조반파로 홍련은 보수파(노홍위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14] 당시 홍련의 주장에 의하면 "지주분자, 부농분자, 반혁명분자, 나쁜 분자, 스파이분자 등 온갖 잡귀신들(흑오류)들이 분분히 뛰쳐나와 '8.27'의 깃발 아래 반혁명 조직을 만들었다"고 한다. 같은 주장에 의하면 8.27 측은 "당원이 아니라도 마오쩌둥 사상의 위대한 기치만 높이 추켜들고 에누리 없이 '16조'를 관철한다면 곧 당의 영도를 대표

12) 정판룡, 「연변의 문화대혁명」, 『중국조선민족발자취 총서 7 - 풍랑』(이하 풍랑으로 약칭), 북경: 민족출판사, 1993, p. 295.

13) 정판룡, 위의 책, p. 295.

14) 혈통론은 출신성분에 따라 우월한 다섯 가지 붉은 부류와 이에 대비되는 나쁜 출신성분인 흑오류(구지주, 구부농, 반혁명분자, 악질분자, 반동분자 가족)나 흑칠류를 나누고 이를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평가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삼는 논리였다. 홍오류와 흑오류 사이에 마오(麻五)류라는 또 다른 범주도 있었는데 이는 소상인, 중농, 상중농, 직원, 자유직업인의 자제를 말하는 것이었다. 문혁 이전까지 흑오류 자제는 대학 진학 자체가 불가능했고, 대학에 진학한 마오류 자제들은 문혁 초기 중학교의 흑오류 자제들과 유사한 탄압을 받았다. "부모가 혁명을 하면 자식은 멋진 놈, 부모가 반동이면 자식은 개자식"은 이러한 것을 대표하는 대자보였다. 백승욱, 『중국 문화대혁명과 정치의 아포리아 : 중앙문혁소조장 천보다와 '조반'의 시대』, 그린비, 2012, p. 80.

한다."라고 주장했고, "연변대학의 대부분 공산당원들은 보황파이므로 '의심해야 하며' 홍련의 공산당원들은 잡귀신들이고 패잔병이며 물에 빠진 개들"이라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공산당원들을 모욕하고 구타하였다고 한다.[15] 이를 통해 당시 홍련에는 기득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공산당원들이 많았고 반면 8.27에는 지주 부농 출신 등 소외계층이나 이를 부모로 둔 사람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홍련은 사회변혁에 상대적으로 보수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8.27은 기존 공산당 체제인 17년의 역사를 조반을 통해 혁파하고자 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는 문혁 이전에 발생했던 반우파투쟁의 영향도 있었다. 연변 또한 58년부터 반우파투쟁의 연장선에서 민족정풍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당시 '지방민족주의', '다조국론', '연변지역의 특수화'를 주장한 자로 낙인을 찍어 수많은 조선족 교육자와 지식인이 우파분자나 지방민족주의자 혐의로 추방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자들, 또한 뒤에서 다뤄질 북한과의 관련이 있는 자들은 중공 체제 밖의 인물이 되어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민족정풍운동은 조선족으로 하여금 한반도와 중국을 모두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중국만을 자신의 유일한 조국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조선족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족을 우선시하는 자치구의 행정에 대한 비판을 했던 한족 또한 많은 피해를 보았다. 결국 문혁이 발생하자 이러한 자신들의 역사문제에 대해 그들은 조반을 일으켜 계층, 신분적 변화를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16]

---

15) 연변대학 붉은기전투련군 "끝가지 반란하는" 전투소조, 「연변대학 '8.27'은 반혁명조직이다.」, 1967, p. 3. 염인호, 「傳單을 통해서 본 중국 연변 지방 문화대혁명과 파벌투쟁」, 『연변 조선족 사회의 과거와 현재』, 고구려연구재단, 2006, p. 184, 재인용.

16) **"공작조가 와도 신세를 고치기는 고사하고 백색공포의 잔혹한 탄압을 받았다. 눈물을 흘리며 검토서를 썼다. 이후 반혁명, 우파분자가 되었다."** 『연변일보』, 1967.02.09.

조반파 세력의 확장을 차단하는 데에 연변 자치구의 간부들이 힘을 기울였지만 11월 말로 접어들면서 '연길 홍색조반자연합 총부'(약칭, 홍색)와 같은 군중조직의 등장과 더불어, 당의 지시에 움직이는 관제적 성격의 문화혁명에 대한 대중의 항의시위가 등장하면서 연변에서의 문화대혁명은 서서히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17] 그리고 12월 2일에 연변대학교에서 최초로 주덕해 비판대회가 열린다. 이때 비판대회를 주도한 8.27의 주된 주장은 주덕해 스스로 자산계급 반동노선을 집행했음을 인정하라는 것과 8.27만이 진정한 반란파라는 것을 승인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주덕해는 반동노선에 대한 집행 부분은 스스로 인정했지만, 8.27파를 승인하지는 않았다고 한다.[18]

8.27파와 홍련파는 결성 후 다방면에서 대립하여 왔지만 특히 연변일보사 장악을 위해 가장 크게 대립하였다. 당시 연변일보사 장악 문제는 1967년 1월에 발생한 상하이 '1월 혁명'에 기인하였다. 상하이의 조반파들은 67년에 상하이 정부를 공격하여 상하이시의 일체 권력을 탈취했음을 선언하였고, 대중을 동원하여 국가를 개조한다는 목표를 가졌던 마오쩌둥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그 지역 지방 권력을 탈취하는 '탈권운동'이 전개되어 상하이 '1월 혁명' 이후 각 부문 및 각 지방의 당정 지도기관은 탈권투쟁의 대상이 되었거나 혹은 개조되었다.[19]

연변에서도 8.27파는 여러 조직을 연합하여 세력을 구축하고 1967년 1월 초 연변일보사와 방송국을 점령한다. 군대가 개입하자 방송국에서는 철수했지만 연변일보사는 완전히 장악하였고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조반에 대한 정당성을 호소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연변 각지에 널리 펼 수 있게 되었다. 67년 1월 12일자 연변일

17) 류은규, 『연변문화대혁명 : 10년의 약속』, 토향, 2010, pp. 102-103.
18) 정판룡, 『고향떠나 50년』, 민족출판사, 1997, p. 268.
19) 진충밍, 시쉬옌 지음, 이정남, 하도형, 주장환 역, 『문화대혁명사』, 나무와 숲, 2005, pp. 166-174.

보 지면을 통해 자신들이 연변일보사를 접수, 관리하게 된 이유를 "연변일보가 연변의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당내의 한줌도 안되는 집권파의 의도를 충실히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20] 신문사 장악 후 8.27파는 세력을 대대적으로 결집해 나갔다. 8.27파의 각 단체들은 1월 13일 연길시 중심지에서 집회를 갖고 길림성 연변조신족 자치주 홍색조반자 연합총부(약칭 홍총)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21] 집회 이후 홍련 측은 8.27파의 단독 탈권행동을 비판하고 8.27이 차지하고 있던 신문사를 포위하고 8.27에게 신문사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처음에는 두 파 군중끼리 말다툼만 하던 것이 결국 큰 충돌로까지 번지게 된다. 이러한 홍위병들 사이의 충돌은 결국 군대의 개입을 초래하기에 이른다.[22]

이 시기까지의 연변에서의 문화대혁명은 연변중앙, 홍위병과 조반파의 갈등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 홍위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홍련은 사회변혁에 상대적으로 보수적 태도를 취하였고, 조반파로 분류되는 8.27은 기존 공산당 체제인 17년의 역사를 조반과 탈권운동을 통해 혁파하고자 하였다. 연변 문혁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이들의 다툼은 결국 큰 충돌로 번지게 되었고, 이러한 충돌은 당시 북한, 소련과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변경지역으로서의 연변이라는 지리적 중요성이 더해져 군대의 개입과 더불어 다른 지역과는 다른 '민족'이라는 갈등양상이 더해지게 된다.

3. 문화대혁명 시기의 북-중 관계

북한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반 중국 편향 속 자주노선을

20) 『연변일보』, 1967.01.12.
21) 『연변일보』, 1967.01.14.
22) 정판룡, 위의 책, p. 298.

추구하였고, 특히 1963~64년 북-중 밀월기에 소련의 보복으로 군사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이어 1964년 10월 흐루쇼프 실각 이후 북한과 소련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번에는 북한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1967년 1월부터 홍위병들은 대자보를 통해 김일성을 소련의 흐루쇼프와 같은 수정주의자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또한 당시 홍위병이 발간하였던 신문 동방홍(東方紅)을 통해서 김일성을 비난했다. 북한의 군 장성이 김일성을 제거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는 내용, 또다른 군 장성이 김일성을 체포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글들을 써붙였다. 더 나아가 당시 베트남전쟁을 언급하면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며 조선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을 원조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3] 또한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는 홍위병들이 국제 홍위병 조직을 결성해 겨울에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가 홍위병 표어를 붙이고 돌아오는 일도 발생했다.[24]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홍위병들은 국경 부근에서 북한을 수정주의 국가라고 비판하는 선전활동을 하였다. 당시 김일성의 말에 의하면, 중국군대가 국경을 넘는 일까지 발생했지만 북한이 인내하여 양국의 군대가 충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25]

이러한 홍위병의 김일성 공격과 북한의 반발로 인해 양국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1967년 북한은 주중대사를 소환하고 중국대사를 추방하였다. 문혁시기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지하겠다는 압박을 통해 소련과 북한의 접근을 견제하고자 하였고, 이에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소련과 손을 잡기에 이른다. 이미 1966년 5월 소련의 브레즈네프와 김일성은

---

23) 下斗米伸夫, 이혁재 역, 『북한정권 탄생의 진실』, 기파랑, 2006, pp. 153-154.

24) 曲愛國, 曾凡祥, 『조남기전(趙南起傳)』, 연변인민출판사, 2004, p. 174, 227.

25) 「Report on the official friendship visit to the DPRK by party and state delegation the GDR, led by Com. Erich Honecker, 8-11 December 1977」, SAMPO-BA 30, J IV 2/2A/2123, CWIHP Bulletin, Issue 14/15, pp.49-51.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2308 검색일: 2017.01.17)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비밀회담을 통해 협력에 합의했다. 이 회담에서 김일성은 "문화대혁명에 대해 북-중 양국이 이웃인 점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낼 수는 없지만, 문화대혁명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1967년 10월 김일성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자주적 외교노선을 통해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노동당 제 2차 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26] 당시 북한 지도부는 중국 문화대혁명을 "마오쩌둥의 좌경노선과 중공내부의 정치권력 투쟁이 모두 뒤엉켜 일어난 것"으로 정리하였다.[27]

1960년대 북-중 접경에서 조선족 중국인과 북한 교포(朝僑)의 북한 출입이 빈번했던 점에 비춰볼 때 중국 내 문화대혁명 상황은 북한에 전달됐다고 볼 수 있다. 북-중 접경지대는 왕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곳이고 문화대혁명은 발발 초기부터 생생한 현장 소식이 북한에 입소문으로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북한 당국의 이런 통제는 북한의 불안감이 컸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문화대혁명이 북한에 불어닥치면 북한 역시 대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중국 전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문화대혁명이 북한에 전파되면 자칫 김일성에 대한 '조반(造反)'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보인다. 이로 인해 북한은 중국 문화대혁명에 대해 당과 정부 차원의 대응을 거의 하지 않았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

26) Note on a conversation with the 1st secretary of the Soviet embassy, Comrade Zvetkov, on 15 March 1967.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47 검색일: 2017.01.17)

27)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시대정신, 2006, pp. 174-175.

뿐만 아니라 문혁 초기 홍위병들의 북한 김일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끈을 잃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1966년 6월 북한과 소련이 경제협정을 맺자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무역 기관들은 북한 상품의 품질에 대해 여러 불평을 해댔는가 하면 납기일을 재촉했고, 북한에 긴요한 개별 상품 공급을 거부했다. 1966년 중국은 북한에 식용유와 콩기름 공급을, 1967년 1월 유황과 여러 종류의 산업 원자재 공급을 급감시켜 북한의 경제를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중국 당국은 북한 어부들이 중국 해안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28]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기인 1966~1967년 북한에 코크스와 가스용 석탄(문혁 이전에 매년 250만 톤 씩 공급), 석유와 석유제품(매달 2만 톤 씩 연간 25만 톤 가량 공급) 공급을 중단했다. 아울러 소금, 식용유, 면화 공급을 끊었으며 이런 공급 중단과 관련해 중국은 북한에 공식적인 통보를 했다.[29] 또한 소련과의 외교접견에서 김일성은 "1968년 북-중 간에 무역 협약이 체결됐으나 중국이 잘 지키지 않는다. 협약 당시 중국이 공급하기로 약속한 코크스와 코크스 석탄의 절반가량이 전달되지 않았다."[30]

---

28) 「7 March 1967 DVO〈Far East Department〉 Memorandum about Sino-Korean Relations」, AVPRF f. 0102, op.23, p. 112, d. 24, pp. 5-12. Obtained for NKIDP by Sergey Radchenko and translated for NKIDP by Gary Goldberg.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570 검색일: 2017.01.17)

29) 「Note, on a Conversation with the Acting Ambassador of the People's Republic of Poland, Comrade Pudisz, on 9 October 1967 between 1000 and 1130 hours in the Polish Embassy」, PolA AA, MfAA, C 149/75. Obtained and translated for NKIDP by Bernd Shaefer.(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40 검색일: 2017.01.17)

30)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the Soviet Union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25 November 1967」, MOL, XIX-J-1-j Korea, 1967, 61.doboz, 5, 002126/6/1967. Obtained and translated for NKIDP by

라고 말하며 소련 측에 지원을 요청한다.

하지만 문화대혁명의 기세가 높아지면서 북한도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에서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익명의 논설을 발표했다. 그 글을 통해서 "베트남전에 개입하여 미제 반대 투쟁을 하겠다."라는 김일성 자신이 수정주의자인가, 아니면 "베트남전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중국 지도부가 더 수정주의자인가"라고 따졌다.[31] 이 논설은 수정주의도 비판했지만 중국의 교조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이는 중국 문화대혁명 지도부와 홍위병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대혁명이라는 단어는 일체 사용하지 않은, 익명의 논설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대혁명 홍위병의 북한 비난 공세는 더 거칠어져 김일성을 흐루쇼프의 제자라고 조롱하고, 북한 내 정변설을 퍼뜨려 북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했다. 급기야 김일성 지도부는 1967년 1월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홍위병을 겨냥한 반격에 나섰다. 1967년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홍위병들이 퍼뜨리는 정변설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했고 다음 날 1월 27일 『로동신문』 1면에 같은 내용을 보도하는[32] 등 공개적으로 대응하였다. 『로동신문』은 성명을 통해 "최근 베이징을 비롯하여 중국 각지의 홍위병 신문, 대자보, 전단지 등에서, 마치 우리 국가에서 '정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조성되어 있다는 허위선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

Balazs Szalontai.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624 검색일: 2017.01.17)

31) 『로동신문』, 1966.08.12.

32) 『로동신문』, 1967.01.27.

다. 성명은 또 북한에서 “당과 정부지도자들, 전 인민들과 인민군대는 하나의 사상으로 단결되어 있다. … 영웅적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영도에 따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전취물을 철벽처럼 지키고, 적의 어떠한 침략도 격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33]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당시 북한은 문화대혁명을 정면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인 표현으로 “적의 어떠한 침략도 격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대목은 중국 문화대혁명 세력을 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전 인민들과 인민군대는 하나의 사상으로 단결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김일성 유일체제를 강조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김일성 지도부를 통해 유일사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언술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김일성은 1967년 3월 17~24일 도·시·군·공장 당 책임비서협의회 연설을 통해 유일지도체계 구축 의지를 암시하였다. 나아가 1967년 제4기 15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갑산파를 숙청하고 전격적으로 유일사상체화를 선언한다.[34] 당시 유일사상체계화에 대해 황장엽은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김일성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김일성 개인숭배를 심화시키려는 북한 통치집단과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인텔리의 대립이었고, 당시 김일성은 중간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독재를 강화하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모방했다.”라고 밝히고 있다.[35]

문혁 시기 북한은 중국 국내와 국경에서의 김일성 비방에 대하여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였고, 이는 당시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제적 원조에 대한 큰 부담이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67년 이후

---

33) 『로동신문』, 1967.01.27.

34) 갑산파 숙청사건을 북한판 小문화대혁명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연구로 최명해의 연구가 있음. 최명해, 『중국, 북한 동맹관계』, 오름, 2009, p. 257 참조.

35)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시대정신, 2006, p. 179.

부터 문혁의 양상이 점차 가열화되고 정부조직의 탈권투쟁과 같은 북한에 대한 체제위협적 행위가 증가하면서 중공당국에 대한 비판보다는 가급적 홍위병에 대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아가 문혁의 '조반' 행위에 대한 북한의 체제 위협은 김일성 유일체계로 나아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이 시기 중국과 북한의 대립의 대립은 각 국가의 당 기관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인 연변자치주에서는 조선족 간부인 주덕해에 대한 북한 특무라는 혐의를 기반으로 중국(한족)-북한(조선족)의 대립양상을 키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68년을 전후하여 혁명위원회를 통한 문혁의 혼란을 '수습'하고자 했을 당시 연변의 홍위병을 '진압'하는 요인으로 쓰인다. 또한 당시 중국의 문혁은 북한에게는 김일성유일체계로 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조선족에게는 조선족 자신들이 중국의 공민이라는 의식의 가속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혁 당시 비판을 받은 조선족 지식인 김학철의 소설 「20세기 신화」[36]에서 "중국과 북한 모두 특정 개인이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을 지배하고 인민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음을 볼 때 문화대혁명 시기의 북한과 중국의 갈등은 소수민족인 조선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4. 혁명위원회 성립 전후의 연변 : '계급노선'에서 '민족'의 문제로

인민해방군은 1967년 1월 23일 마오쩌둥의 "인민해방군이 혁명좌파 군중을 단호하게 지지하는 것에 관한 결정" 지시에 따라 혁명적 좌파대중의 지지를 위해 문혁에 개입하였다. 3월 19일 군사

36) 김학철, 「20세기 신화」, 『후기』, 창작과비평사, 1996, pp. 268-269, 345-346.

위원회가 '삼지양군(三支兩軍)'[37]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군은 학교, 기관, 공장 등에 주둔하면서 탈권투쟁을 지지하였다. 마오쩌둥의 지시가 있은 후인 1월 25일 8.27파의 연합조직인 홍총은 중공 연변주위가 가지고 있던 문혁의 영도권을 접수, 관리하고 동시에 무산 계급 독재를 보위하고 반혁명 정변을 방지하기 위해 주위와 주인민위원회 등 당 정 기관의 권력을 탈취했음을 선언하였다.[38] 마오쩌둥의 군대에 대한 좌파 지지의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8.27파는 이제 조직력을 완비하고 있던 군대의 지지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탈권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39]

하지만 상황은 8.27파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는 않았다. 연변지역의 인민무장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연변군분구[40]는 8.27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군분구 사령관인 孫國華(손국화, 한족)는 "8.27을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는 진압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하고, 군분구 제2정치위원 趙南起(조남기, 조선족)는 "8.27은 전형적인 반혁명 조직"이라고 말한다. 조남기는 보수파인 홍련 쪽에 마음이 있었고 8.27파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41]

---

37) 좌파, 노동자, 농민 3자 지지와 군사관제(軍事管制), 군사훈련이라는 2가지의 군의 활동을 가리킨다.

38) 『연변일보』, 1967.01.26.

39) "혁명파 무장시켜 권력탈취 실현하자." "홍기군, 8.8단과 같은 반혁명조직과는 대연합을 하지 않는다." 『연변일보』, 1967.02.09.

40) 1956년 6월 25일 길림성 군구의 명령에 따라 연변병역국을 토대로 하여 중국인민행방군 연변군분구를 조직하고 연변지방의 인민무장사업을 책임지게 한다. 문혁 당시 군분구의 사령관은 한족인 손국화가 역임하였고, 군분구의 정치위원은 조선족인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위원회 제1서기인 주덕해가, 군분구 제 2정치위원은 조선족인 조남기가 역임하고 있었다.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 자치주 조직부 외 편,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조직사』, pp. 260-261.

41) 曲愛國, 曾凡祥, 『조남기전(趙南起傳)』, 연변인민출판사, 2004, pp. 172-175.

당시 지방의 군대가 조반파를 반대하고 보수파를 지지했던 사례는 많았다. 마오쩌둥이 좌파를 지지하라고 했지만 어떤 세력이 좌파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은 홍오류 출신 계급이 많은 조직을 좌파조직이라고 하여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군 간부는 당정 간부와 똑같이 관료특권계급에 속하기 때문이었다. 연변과 같은 지방 당정 기관 및 기업의 무장, 방위, 인사 부문의 간부가 군 간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 간부로서는 조반파들의 관료특권계급 전체를 부정하는 언동에 찬성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적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군분구 측의 태도는 8.27파의 저항을 야기하였고 홍련 측에 의하면 8.27측은 "군분구를 포격하고 조남기를 불사르자.", "조남기를 타도하자"는 등등의 표어를 거리에 내다 붙였다고 한다.[42]

하지만 군대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중앙의 명확한 방침이 내려오면서 8.27파의 입장은 난처하게 되었으며, 홍련 측의 활동은 상당히 기세가 맹렬해지고 특히, 8.27이 군대에 대항한 점을 비난하는 선전을 하여 조반파인 8.27을 불리한 위치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연변 지방을 담당하고 있던 군분구와는 대조적으로 외부 군대인 심양군구의 주둔군(3168부대)는 8.27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다.[43] 이러한 파벌투쟁에 군대, 특히 외부의 군이 개입하면서 파벌 간의 관계는 크게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연변의 문화대혁명 전개 상황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 것은 마오위엔신이 연변에 나타나게 되면서부터이다. 마오위엔신은 마오쩌둥의 둘째동생인 마오쩌민의 아들, 마오쩌둥의 조카였다. 그는 베이징 칭화대를 다니다가 1964년에 하얼빈 군사공정학원을 졸업

42) 연변대학 붉은기전투련군 "끝가지 반란하는" 전투소조, 「연변대학 '8.27'은 반혁명조직이다.」, 1967, p. 2.

43) 염인호, 「傳單을 통해서 본 중국 연변지방 문화대혁명과 파벌투쟁」, 『연변 조선족 사회의 과거와 현재』, 고구려연구재단, 2006, pp. 193-195.

하고, 문혁이 일어나고 흑룡강성에서 홍색조반파에 가담하다 1967년 12월에 연변에 들어왔다.[44] 66년 12월 7일 연변대학에서 연설 중 주덕해를 '너무 우편향적이다.'라고 비판한 이후 연변대학의 군중 조직이 분열되기에 이른다.[45], 이후 주덕해는 연변 문혁의 중심이 아닌 중심이 되고 말았다. 이후 연변의 군중 조직은 주덕해 비판과 주덕해 옹호로 갈리고 만다.

마오위엔신은 그간 연변 사회를 지도하여 온 연변 주위 제1서기 주덕해를 타도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마오위엔신은 67년 1월 31일 궐기대회를 열어 중공 흑룡강성 위원회와 성인민위원회를 장악하고 임시권력기구로서 홍색조반자 혁명위원회를 탄생시켰으며 일체의 권력이 혁명위원회에 있음을 선포했다. 당시 흑룡강성의 혁명위원회 설립[46]은 전 중국에서 첫 번째였다. 문혁의 극단적 대중운동을 잠재우는 기구였던 혁명위원회의 첫 설립에 마오쩌둥의 조카 마오위엔신이 담당을 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

44)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에게 연변이 반혁명파의 수중에 권력이 들어갔으니 총리가 가보고, 마오위엔신이 1달 전에 연변에서 공작을 하여 호전될 기미가 있다고 말한다. 마오위엔신은 지금 하얼빈으로 가려고 하니, 그가 가지 않았다면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고 지시한다. 毛澤東,「在延邊自治州党委要求中央文革小組去電制止冲突報告上的批語」(1967.01.21.), CCRD수록, 참조.

45) 이 글에서 마오위엔신은 자신이 홍색조반파에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특히 간부자녀인 자신과 그 조직인 흑룡강성의 8.8단에 대해 자아비판을 하고 있다. 毛遠新,「我爲什么參加紅色造反團」(1966.12.),『哈爾濱電工學院紅色造反團反修戰斗隊翻印』, CCRD수록, 참조.

46) 혁명위원회란 '삼결합' 원칙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문화대혁명 중후반기의 공식적인 권력기구이다. 삼결합이란 당과 군대, 그리고 군중조직이 권력을 분담하는 것으로 정부 형태의 조직에 3자의 대표가 파견되어 연합권력을 구성하는 형태의 권력기구이다. 상하이에서 전개된 탈권과 꼬뮨(公社) 수립 시도를 좌절시킨 후 마오쩌둥을 위시한 중앙문혁의 지도자들은 기존의 정부 조직을 대체할 권력 기구로 '삼결합'에 근거한 혁명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한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의 행정 단위에 혁명위원회가 지방자치 권력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백승욱, 앞의 책, pp. 161-162.

마오쩌둥이 마오위엔신에게 지시한 연변의 좌파지지는 단순한 좌파지지를 넘어 국경지역인 연변의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47] 이러한 마오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마오위엔신은 연변이라는 소수민족자치구의 특성을 이용하여 연변의 대중운동을 계급투쟁이 아닌 민족투쟁의 양상으로 전의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연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월 23일 중공중앙에서 군대가 권력탈취투쟁에 개입할 것을 지시하고 이후 2월부터 연변에서 군대가 권력투쟁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8.27'이 포함된 '홍색'이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2월 23일에는 연변일보에 대한 군사관제를 실시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연변일보는 신화사통신의 기사만 받아서 싣게 된다. 그리고 3월 11일에 심양군구의 건의로 연변조선족자치주 군사관제위원회가 설치된다.[48] 연변은 중국 동북지방에서 유일하게 군사관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되었다. 67년 2월부터는 연변 내 군중조직들이 새롭게 조직되기에 이른다. 탈권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큰 세력을 조직하느냐에 달려 있었고, 당시 대중 조직들은 주덕해를 두고 '홍색'(홍색조반혁명위원회)과 '노혁회'(노동자혁명위원회)로 양분되는 모습을 띠게 된다.[49] 군사관제

47) 당시 심양군구, 흑룡강성을 방문한 저우언라이와 천보다, 강생은 북한(조선)의 수정주의에 대해 동북3성이 접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강조하고 3결합의 혁명위원회설립을 강조한다. 陶鑄, 「陶鑄等接見沈陽毛澤東思想紅衛兵總部各校代表的講話」, 『北京化工學院紅色宣傳員戰斗組』(1966.11.17.), 周恩來, 康生, 陳伯達, 「中央首長接見吉林省革委會群衆代表和軍隊代表時的講話」(1968), 이상 CCRD 수록, 참조.

48) 「打倒无政府主義」, 『人民日報』編輯部 1967.04.26, CCRD 수록, 참조.

49) 연변일보 기사에는 "국가재산을 임의로 쓰고 노임을 마음대로 올리면서 반혁명적 경제주의를 실시하고 있다…투쟁의 대방향을 전이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임조정, 노임보조발급, 복리대우에 대해 운동 후기에 가서 처리한다."라고 밝히고 있어 노동자혁명위원회가 단순히 조선족 간부로

이후 기존의 토착세력 조반파인 8.27에 대해 외부세력인 마오위엔신 측과의 조반과 탈권에 대한 우위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마오위엔신 측이 이용한 것이 바로 '민족'의 문제였다.[50] 이로 인해 8.27파는 분화되고 마오위엔신 측의 홍색과 기존 홍련계통의 노혁회에 각각 흡수된다.

당시 마오위엔신 측은 앞서 살펴본 북-중관계의 갈등을 이용하여 주덕해가 북한의 특무, 스파이라고 주장한다.[51] 이 점은 조선족 간부인 주덕해의 죄명에서 더 나아가 조선족자치구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조선족 또한 북한의 특무, 스파이의 혐의가 덧씌어질 수 있었고, 이는 외부세력인 한족 마오위엔신과 더불어 조선족자치구에 살고 있는 조선족을 제외한 한족의 대한족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 양쪽 사이에 무력충돌이 잦아지고 총격전까지 발생한다. 특히 홍색 측은 주덕해를 옹호하던 노혁회와 북한을 연결시킨다. 노혁회가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연길을 피로 물들이고 도문관을 넘어서 내 고향으로 가자"라는 반동구호를 제기하고 무단적 투쟁을 일으켰다고 비난한다. 나아가 8월 5일에 연변군사관제위원회는 무기를 '홍색' 민병대에 발급하였고, 급기야 노혁회 계열은 8월 18일 공격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 북한 경내로 피신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후 연변에서의 문혁은 '민족'

써의 주덕해에 대한 옹호의 뜻만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연변일보』, 1967.01.29.

50) 저우언라이는 마오위엔신이 연변좌파를 무장시켰음을 칭찬하고 마오위엔신은 당중앙파이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못박는다. 周恩來, 「周恩來等接見黑龍江省炮轟派代表時的談話」(1967.11.24); 周恩來, 戚本禹, 吳法憲, 「中央首長接見黑龍江双方代表的談話」(1967.09.06.), CCRD 수록, 참조. 당시 주덕해를 옹호하는 '보황파' 간부 군중 가운데 대다수는 조선족이었고, 홍색파의 주요 구성원은 한족군중이었다고 한다. 曲愛國, 曾凡祥, 『조남기전(趙南起傳)』, 연변인민출판사, 2004, p. 289.

51) 로동문, 「동북의 태상황 모원신이 연변에서 저지른 죄행」, 『풍랑』, 북경: 민족출판사, 1993, p. 397.

의 문제로 고정되는 모습을 나타낸다.[52]

또 68년 3월에는 「북경특호소식」이라는 유인물을 만드는데, 이 유인물은 주덕해가 '조선(북한)과 내통했다'고 중앙에 자백했다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었다.[53] 주덕해의 북한특무 혐의는 연변에 혁명위원회가 수립되어 일정 정도 수습이 된 뒤에도 계속 등장하였고, 심지어 72년에 주덕해가 병사 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개된 '계급대오정리'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노동당사건', '특무 사건' 등과 같은 사건들로 인해 사망한 일도 발생한다. 68년의 특무사건에서는 "연변자치주 전 지역의 정법계통 조선족 정법 간부와 경찰총수의 70%"[54]에 달하는 175명의 사법, 경찰 관계 조선족 간부들이 이른바 '외국특무'로 몰려 체포되어 사망하거나 고문을 당했으며, 북한에 친지나 지인이 있어 북한을 왕래한 경험이 있거나 50년대 말 대기근 당시 북한으로 넘어가 기아를 모면했던 사람, 과거에 해외 여행을 했거나 유학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간첩', 혹은 조국을 등진 '반역자' 등으로 몰려 혹독한 고초를 겪어야 했다. 당시 마오위엔신 측이 꺼내든 주덕해 타도의 죄명을 요약[55]해보면,

1) 북한의 지도자들이 연변을 북한에 귀속시키려는 영토적 야심을 가졌고, 영토 야욕을 지닌 북한 지도부의 밀명을 받고 주

52) 정판룡, 앞의 글, p. 304.

53)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혁명위원회성립에 대한 축전의 기사에서 '다중심론(多中心論)'을 비판하고, 반혁명분자에 대해 무산계급혁명노선을 반대하면서 반역자를 긁어모으고 당파를 두어 사리를 도모하며 외국(필자: 북한)과 내통하고 대대적으로 지방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대대적으로 독립왕국을 꾸리며…조국의 변방에서 자본주의를 복벽하려 시도하였다고 비판한다. 『연변일보』, 1968.08.18.

54) 정판룡, 앞의 글, p. 306.

55) 「打倒大賣國朱德海」, 『延邊紅旗』, 1967.02, pp. 8-27.

덕해가 연변을 북한에 귀속시키기 위해 노력
2) 주덕해가 '연변 자결화'를 주도
3) 주덕해가 '연변의 민족화'를 추진
4) 자치주를 확대하여 북한에 넘기려 하였고, 북-중 국경 회담 과정에서 중국 영토를 북한에 넘겨주는 일을 담당
5) 1960년대 초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꾀한 것
6) 조선인들의 불법적인 북한이주를 고취

당시 주덕해에 대한 죄명을 통해 마오위엔신 측은 조선족 간부라는 소수민족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사회주의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혁 이전에 일어났던 민족정풍운동이 발생했을 당시 부각되었던 지방민족주의와 연변자치주의 독립, 자결주장을 당시 자치주 주장이었던 주덕해에게 죄를 덧씌움으로써 외부세력으로 들어온 마오위엔신 측의 권력장악의 합리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더불어 당시 북한과 중국 사이의 외교적 불화 또한 이용하여 혁명위원회에서 한족간부들이 조선족자치주를 장악하도록 조장하면서 주덕해 이후 조선족 자치주 1서기에는 더 이상 조선족 간부가 오르지 못하였고, 한족 간부가 담당하게 된다. 결국 국내의 문제와 더불어 당시 북한과의 관계 또한 '조선족'이라는 민족문제의 양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과 소련의 외교적 관계에서 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민족'의 문제로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조선족 또한 피해를 입게 된다.[56] 혁명위원회가 수립되는 68년 8월과 그 이후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56) 문혁시기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 마찰에 관한 연구로는 박종철, 「문화대혁명 초기 북중관계와 연변 조선족」, 『민족연구』63호, 2015; 염인호, 「중국연변 문화대혁명과 주덕해의 실각 : 북한 특무 혐의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25집, 2005; 이종석, 『문화대혁명시기북한-중국관계 연구』, 세종연구소, 2015; 인교준, 『북한 유일사상체제 형성의 문화대혁명 요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6.

에서 '민족'의 문제가 문혁의 권력투쟁과 계급노선 투쟁을 대신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57]

이처럼 소수민족자치구역에서의 문혁대혁명은 계급투쟁을 민족의 적으로 구분하여 해체시키고, 자치구라는 공간을 중국의 중앙-지방의 일원화된 관계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인민과 국토로 통합시켰다. 문혁시기를 겪는 동안 조선족들이 엄연한 중국 국민(공민)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문혁 시기에 연변에 등장한 민족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실체화되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 문혁의 타자(他者)로 남은 연변

68년 8월 18일 길림성 혁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연변조선족자치주 혁명위원회가 성립되고 군사관제를 해체하였다. 문화대혁명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하였던 북-중 관계는 1969년 중공의 혁명위원회 설립, 중국 내부의 문화대혁명의 기세 완화와 더불어 중공 중앙의 획일적 통치질서가 다시 재수습됨으로써 다시 회복되기에 이른다. 1969년 5월 1일 국제노동절을 기념해 베이징에 온 40여 개국의 사절단과의 회동에서 저우언라이 총리가 주도적으로 문화대혁명 기간 중국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였고[58],

57) '언어문제인가 아니면 조국을 배반하고 수정주의노선에 투항하는 문제인가?-반동적인 민족분열주의 방침을 철저히 비판하며'에서는 **"중국은 한족을 주체로 하는 다민족국가이며…xx(필자- 북한)수정주의의 공민이 될 수 있다.** 언어순결론은 다조국, 민족 고국을 기초로 하는 것임으로 비판해야한다. 마오주석 어록 100여 곳을 왜곡하여 해석하였다."고 말하며 언어문제에 있어서 한어로부터 다량의 술어를 흡수해 자신(조선족)의 언어를 풍부히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연변일보』, 1968.10.12.; '민족문화혈통론을 철저히 비판하자' 『연변일보』, 1969.07.29.

58) 저우언라이는 동북지역에서 비판받은 간부를 재교육하여 다시 배치해야 하며, 군대와 군중을 통해서는 대연합이 힘들어서 간부가 반드시 필요하

1970년 10월 8~10일 김일성이 베이징을 비공식 방문해 마오쩌둥, 저우언라이와 회담했다. 마오쩌둥은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문화대혁명에서의 '극좌파'가 김일성과 북한에 대해 반대한 행동에 대해 비판했고, 북-중 양국의 관계는 회복된다.[59]

연변에서의 문혁은 군사관제시기 '민족' 문제가 중점이 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혁명위원회가 성립되고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민족' 문제는 연변에서의 문혁의 갈등요인으로 끊임없이 부각되어야 했다. 특히 소수민족들의 민족자결에 대한 견제의 수단으로서 혁명위원회를 통해 지방권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한 국가권력기구의 재편과정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 결과 문혁은 소수민족지구에서 이들 지역의 자치성과 민족문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작용을 하게 되었고, 소수민족의 고유문화는 수정주의, 봉건주의라는 명목 하에 청산대상으로 전락했다.

중공당국의 혼란한 상황의 정리에 있어서 연변조선족자치구는 '민족' 문제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방법보다 더 강한 일체화이론의 계기를 타의적으로 마련해주었고, 결국 이로 인해 소수민족자치주인 연변에서는 중공당국에 반하는 인사들이나 대중들이 특무, 반역자, 매국역적 등의 죄로 덧씌어져 탄압당하는 결과는 초래하게 되었다. 시작 초기는 문혁의 일반적 흐름과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후 중공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혁명위원회가 들어서기까지 군대가 많은 조반파들을 반민족분자로 처리하면서

다고 말한다. 그리고 강생이 주덕해의 죄를 저우언라이에게 말하며 그를 다시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우언라이는 혁명위원회 성립 이후 다시 고려해보자고 말한다. 이를 통해 당시 저우언라이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덕해라는 인물을 상당부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周恩來, 陳伯達, 康生, 「中央首長接見沈陽軍區及遼宁省各方代表時的講話」(1968.05.09), CCRD 수록, 참조.

59) 박종철, 「북한과 중국의 관계정상화 과정에 대한 연구(1969-70년)」, 『아태연구』제15권 제1호, 2008, pp. 30-33.

혁명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그 흐름은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게 된다. 사실 소수민족에게 문혁과정에서의 민족문제는 중국과의 일체화 이론이자 중국화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니었을까? 문혁과정에서 변경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계급투쟁과 중공중앙에 대한 비판이 뚜렷이 드러나는 데 반해, 소수민족에서의 문혁은 계급투쟁과 중공중앙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민족문제로 모두 흡수되어버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중국 문혁시기 연변을 포함한 소수민족 지역은 타자(他者)적 이미지를 거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신중국의 영토적 통합력이 자의든 타의든 대폭 제고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연변일보』 1966~1970.
Song Yongyi, Chinese Cultural Revolution Database, Published by Universities Service Center for Studies, 2006.
『延邊紅旗』, 1967.02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우드로윌슨센터의 디지털아카이브)
『로동신문』 1967~1970.
연변대학 붉은기전투련군 “끝가지 반란하는” 전투소조, 「연변대학 ‘8.27’은 반혁명조직이다.」, 1967.

2. 논문

이강원, 「문화대혁명과 소수민족지구의 정치지도 : 내몽고자치주와 어룬춘자치기의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02.
박종철, 「중국의 민족정풍운동과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이주」, 『한중사회과학연구』13권, 2015.
박종철, 「문화대혁명 초기 북중관계와 연변 조선족」, 『민족연구』63호, 2015.
성근제, 「문화대혁명과 연변」, 『중국현대문학』43호, 2007.

염인호,「중국 연변 문화대혁명과 주덕해의 실각 : 북한특무 혐의를 중심으로」,『한국독립운동사연구』25집, 2005.
최병우,「조선족 소설과 문화대혁명의 기억」,『현대소설연구』54, 2013.
고명철,「중국의 맹목적 근대주의에 대한 조선족 지식인의 비판적 성찰 : 중국 조선족 작가 김학철의 〈20세기의 신화〉의 문제성」,『한민족문화연구』22집, 2007.

3. 단행본

이종석,『문화대혁명시기 북한-중국관계 연구』, 세종연구소, 2015.
정판룡,『고향떠나 50년』, 민족출판사, 1997.
류은규,『연변문화대혁명 : 10년의 약속』, 토향, 2010.
정판룡,「연변의 문화대혁명」,『중국조선민족발자취 총서 7 - 풍랑』, 북경: 민족출판사, 1993.
염인호,「傳單을 통해서 본 중국 연변지방 문화대혁명과 파벌투쟁」,『연변 조선족 사회의 과거와 현재』, 고구려연구재단, 2006.
진충밍, 시쉬옌 지음, 이정남, 하도형, 주장환 역,『문화대혁명사』, 나무와 숲, 2005,
下斗米伸夫, 이혁재 역,『북한정권 탄생의 진실』, 기파랑, 2006.
曲愛國, 曾凡祥,『조남기전(趙南起傳)』, 연변인민출판사, 2004.
황장엽,『황장엽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시대정신, 2006.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 자치주 조직부 외 편,『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직사』
김학철,「20세기 신화」,『후기』, 창작과비평사, 1996.
최명해,『중국, 북한 동맹관계』, 오름, 2009.

(**투고일**: 2017. 3. 8 **심사완료일**: 2017. 4. 12 **게재확정일**: 2017. 4. 12)

이름: 정호윤
소속: 영남대학교 동아시아문화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280 영남대학교
전자우편: jhw2100@naver.com

[Abstract]

The Other in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 Focused on Yanbian

Jung, Ho-Yun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process of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in Yanbian from 1966 to 1970, and the diplomatic situ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1966-1970). I'm doing so, I reviewed various aspects of the Cultural Revolution in a minority race area. In particular, people's historical problems about the result of the anti-right struggle that occurred before the Cultural Revolution. They had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rebel groups who hoped for a change in class, and the Red Guards who appeard to uphold conservative values. In the process of the rising national conflict since 1967,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t that time shows the resolution of the 'national' problem in the chaotic circumstances facing the Chinese authorities. This resulted in a stronger unification of the integration as compared with other methods. As a result, in the Yanbian, a minority self-governing state, the people and the public opposed to the Chinese authorities were trapped and repressed by the crimes of specialism, traitors. The Cultural Revolution in a minority race area shows the process of class struggle and critical thinking abou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eing absorbed by the national problem.

Key words: Chinese Cultural Revolution, Yanbian, North Korea-China Relations, Deokhae Ju(朱德海), Mao Yuanxin(毛遠新), rebel groups(造反派), Ethnic conflict